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진구품(塵垢品) ①

生無善行 생무선행
死無惡道 사타악도
往來無間 왕림무간
到無費用 도무자용

살아서 선한 행을 하지 않으면
죽어서 악도에 떨어진다
일됨 없이 악도로 달려가지만
가서는 노자 돈 한푼이 없다

當求智慧 당구지혜
以然定意 이연의정
去垢勿汚 거구물오
可離苦形 가이고형

그러므로 마땅히 지혜를 구하여
그로써 마음이 선정에 들게하고
번뇌의 때를 씻어 더럽히지 않으면
형상계의 괴로움을 여윌 수 있게 된다

慧人以漸 혜인이점
安徐稍進 안서초진
洗滌心垢 세제심구
如工鍊金 여공연금

지혜로운 이는 차츰차츰 닦아

인색함은 베푸는 일의 때가 되고
선하지 않은 것은 행실의 허물이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나쁜 법은 언제나 때가 된다

垢中之垢 구중지구
莫甚於癡 막심어치
學當捨惡 학당사악
比丘無垢 비구무구

허물 중의 허물로서
어리석음보다 더 한 것은 없다
공부하는 이 마땅히 악을 버려라
비구들이여, 때가 까지 없게하라

苟生無恥 구생무치
如鳥長喙 여조장취
強顏耐辱 강안내욕
名曰穢生 명왈예생

구차히 살면서도 부끄럼이 없으면
마치 탐욕스런 새 부리 긴 것 같고
낮두럽게 욕됨을 이겨내는 것
그것을 더러운 삶이라 한다

廉恥難苦 열치수고
義取清白 의취청백

“인색함은 베푸는 일의 때가 되고
선하지 않음은 행실의 허물된다”

서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서
마음의 때를 말끔히 씻는다
마치 숙련공이 쇠를 불림과 같이

遲而不怠 괴욕불망
名曰潔生 명왈결생

養生於心 악생어심
還自壞形 환자괴형
如鐵生垢 여철생구
反食其身 반식기신

염치를 차리기만 비록 괴롭지만
뜻으로 맑고 깨끗함을 취하고
욕을 피하되 망녕되지 않으면
그것을 깨끗한 삶이라 한다

愚人好殺 우인호살
言無誠實 언무성실
不與而取 불여이취
好犯人婦 호범인부

악이 마음에서 생겨나
도리어 제 몸을 허무는 것은
마치 저 쇠붙이에 녹이 생겨서
도리어 제 살을 깎아먹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이는 살생을 좋아하고
말에는 진실함이 없으며
주지 않는데도 취하려고하고
남의 부인 범하기를 좋아한다

不誨爲言斯 불훈위언구
不動爲家斯 불근위가구
不嚴爲色斯 불엄위색구
放逸爲事斯 방일위사구

글을 읽지 않음은 입의 때요
부지런하지 않음은 집의 허물이고
근엄치 않으면 몸의 때가 되고
방일하는 것은 일의 허물이 된다

淫心犯戒 정심범계
迷惑於酒 미혹어주
斯人世世 사인세세
自毀身本 자괴신본

‘聖爲惠施后 간위혜시구
不善爲行后 불선위행구
今世亦後世 금세역후세
惡法爲常后 악법위상구

욕심 나는대로 계를 범하고
술에 빠져 미혹하면
이런 사람은 세세생생에
스스로 제 뿌리를 캐내는 것이다

龍 眼

승산스님 (화계사 조실)

땅에 넘어진 사람
땅 딛고 일어나야 하듯
IMF시대 나랏살림
거품빼고 과욕버려야
회생할 수 있습니다

온 나라가 어수선 합니다. 누구든 입만
열면 경제 얘기를 합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목표를 잘못
세웠던 탓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을 가다듬지 못한채 너무 거창하게 세계
화라는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을 잘못 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미궁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좀
중요로와 지나가 우리도 서구 선진국의
흥내를 내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과욕이
생겼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이라는 수치
가 과욕의 도화선이 되었고 거기서 불은
불은 소비와 향락의 잣대미를 안겨준 것
입니다. 이제 참회할 때입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라는 수치상의 발
전이 우리의 현실적인 풍요라고 믿은 것
이 잘못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못하
고 잘사는 나라의 뒤풍무늬만 허겁지겁
따라다니다 보니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
들이 국민의 행복을 가능하는 척도인양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착각을 한 국민이
나 그렇게 수치를 앞세워 치세의 공을
선전한 정부 관료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 경제대란은 누구 한사람의 잘
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착각과 과욕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발을 땅에 두지 않고 허공에 목표를 매
달아 둔채 정신없이 헤매다가 이제서야
국제통화기금(IMF)이라는 철퇴를 한방
맞은 꼴입니다. 아픔이나. 정신이 아득합
니다. 이제 빨리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
의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 보아 우리의 참모
습을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땅에 넘어진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나
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난세야 말로
호시절’이란 말씀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
리면 넘어진 땅이 재기의 토대가 되고
마음만 흐트리지 않으면 난세를 빌어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
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는 것
입니다. ‘힘들다’ ‘죽겠다’는 말을 입버
릇처럼 되뇌며 시절만 타타하다보면 정말
힘들어 죽고말니다.

나는 청년시절에 일본 경찰에 잡혀 감

옥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양서 학교
를 다니다가 낮없이 일본 경찰에 끌려
가게 되었습니다. 죄라야 일본인 학생들
을 때려주고 골탕먹이는 정도지요. 그런
데 감옥까지 들어가다니 정말 막막한 일
이었습니다. 과학에 관심이 많은 내가 당
시로서는 구하기도 힘들고 일반인이 소지
해서는 안되는 부속품들을 좀 모아갖고
있었던 것이 독립군을 돕는 것으로 오해
되어 치른 옥고였지만 그곳에서 나는 중
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을 실
감했던 것이지요. 일본인 형사들은 아예
나를 독립운동하는 학생으로 표적을 정
해두고 심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 한

- 1927년 평안남도 순천 생
· 순천 공립학교, 평안 공립학교,
동국대 불교과 졸업
· 47년 고봉스님 은사로 득도
· 50년 수덕사에서 하안거 이후
10인거 성만
· 마곡사 대교과 졸업
· 66년 일본 통령에 총법원 건립
이후 대만 미국 총총 브라질
프랑스 등 세계각국에 총법원
설립 선수행 지도
· <천강에 비친달>등 법어집 2수
간행
· 현 조계종 원로의원



“한국화도 못한채 ‘세계화’ 찾다
남에게 도움 청하는 신세됐어요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성한법”

마더를 어떻게 받아 넘기느냐에 내 삶의
방향이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쌀 암매상이나 고기 암매상
들이 ‘어떤 걸 물어도 정신을 차리고 꿈
꿈히 생각해보고 대답하라’고 조언을 했
기에 나는 내가 어떤 일에 휩쓸려 있고
나의 대답함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린 나이에 감옥과 일본 형사라는 환경
에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신
을 바로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운 셈
입니다.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면 그 어려워진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 원인을 봐야합니다. 참선 수행법에 관
(觀)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경제대란의 원인을 제대로 관해야 합니
다. 머리로 계산해서 알아내는 것은 관이
아닙니다. 분석이고 추산일 뿐입니다. 관
이란 마음의 잣대, 다시말해 우리의 정신
상태까지를 철저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가 받고있
는 고통의 근원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합
니다. 설마 세계화라는 거창한 구호를
목표로 삼은 과거의 허세를 걷어내야 합
니다. 요즘 거품을 뺀다는 말이 유행입니

다. 우리 경제가 거품위에 떠 있다가 이
제야 땅으로, 우리의 현실로 그 발을 붙
이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들
정신 속의 거품도 속속들이 빼내야 합니
다. 세계화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세계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국
화라고 생각합니다. 불이켜보면 우리의
경제, 문화, 사상은 급변하는 사회 정치
경제질서 속에서 국적을 잃어 버렸습니
다. 우리민족이 태어나 살아온 땅인 이
한국이란 국적을 잃어 버리고 서양식에
만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화
도 못한채 세계화를 넘보다가 이렇게 어
려운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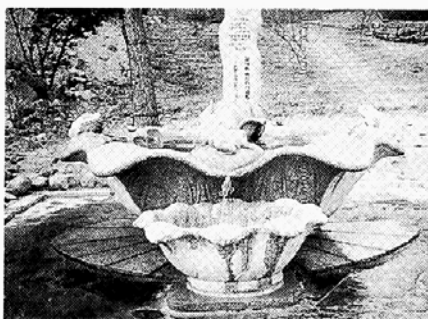
한국화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의 문화적 뿌리, 우리의 정신사상적 뿌리
를 올바르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다가 현대화의 정치 경제 문화
를 접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30년간 세계 30여개국에 160
여개의 총법원과 선선터를 세우며 불법
의 세계화를 위해 뛰었습니다. 내가 무슨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 · 심 · 석 · 재

다양한 석재들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든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벌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기능올림픽 수상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옥수 합장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97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예약접수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97년 한해를 총집결한 **합본 '97년판** 을 발간합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 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예약주문 하시는 분들께는 1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합본집('97년판) : 제109호(1997년. 1. 1.)-제 156호(1997.12.24)
■ 가 격 : 60,000원(발송비 별도) * 할인가격 : 54,000원
■ 예약접수기간 : '98년 1월 24일까지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代) 02)737-8881 팩스 : 02)737-0697